

기독교 - 교리와 신비

서양 사상의 두 토대

어떻게 서로 다른 사상이 공존했는가

흔히 서양 사상은 두 가지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즘은 그리스·로마의 정신을, 헤브라이즘은 <구약>성서의 세계관을 말한다.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었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은 언뜻 대립하는 사상처럼 보인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철학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적 종교. 하지만 대립하는 두 사상은 근원에서 같은 사상을 공유한다. 그것은 이원론이다.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고 세계와 자아를 양분해온 것처럼, 기독교는 세계를 천국과 지상으로 나누고 신과 인간을 양분했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무렵에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원시 신앙에 머물던 기독교를 체계화했고, 13세기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종교와 철학의 통합을 시도했다. 유럽의 역사에서 철학과 기독교는 대립하고 갈등하며 화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근원에서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양철학은 근현대에 이르러 이원론의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칸트의 관념론부터 현대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상은 의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보는 자아와 보이는 세계의 유의미한 연결성을 탐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대 인도와 동양의 거대 사상처럼 과감하게 ‘나와 세계는 하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독일 관념론의 탄생은 기껏해야 200년이 조금 넘었고, 양자역학의 탄생은 100년이 되지 않았으니, 서양의 철학과 과학이 앞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서양 철학에서 이원론의 그림자가 천천히 걷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원론을 벗어나지 않았다. 천국과 지상, 신과 인간의 분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고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절대적인 정통성이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과 이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단일한 경전과 일관된 세계관을 유지한 다는 것은 많은 이의 신념과 노력을 통한 결과였다.

이제 서양 사상의 또 다른 축인 기독교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이야기는 역사에서 시작한다. 기독교의 탄생 배경으로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등장한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볼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기독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후 기독교가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계 종교의 기틀을 다질 수 있

었는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와 철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원론적 세계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안에서 이원론을 극복하는 시도가 결코 불가능한 것인지,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통해 함께 생각해볼 것이다.

역사적 배경

다시 등장하는 그리스인

앞서 고대 그리스 시대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그중에서 네 시기를 알아보았다. ① 에게 문명부터 ④ 그리스 고전기까지,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이 있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다.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플라톤으로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시 시작된다.

말년에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사립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리스 전역에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그리스 고전기 철학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 변방 도시인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방인으로, 아카데미아에서 20년간 수학했다. 플라톤은 그를 ‘아카데미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와 아테네의 정치적 관계는 불안했다.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이 있을 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의 적대적 시선을 경험해야만 했다. 아테네인은 변방의 마케도니아인을 야만족이라는 뜻의 바빌로스로 불렀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42년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 4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그는 왕세자의 가정교사가 되어 3년 가까이 가르쳤다. 왕세자는 스승으로부터 그리스의 정신과 철학에 대해 배웠다. 이 어린 왕세자는 후에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의 정복자가 된 알렉산드로스였다.

⑤ 헬레니즘은 시대의 이름인 동시에 문명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 뜻은 그리스 문화 혹은 그리스 정신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융합되며 탄생한 독특한 문화와 예술의 시대를 말한다. 헬레니즘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대체로는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기원전 330년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한 기원전 30년까지 300년의 기간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헬레니즘은 알렉산드로스로부터 로마 제국 탄생 이전까지의 시대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날 무렵의 그리스 전역은 혼란스러웠다. 이때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하지만 다른 도시국가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기원전 395년에는 아테네, 테베, 아르고스, 코린토스가 연합해 스파르타에 맞서 코린토스 전쟁을 일으켰고, 기원전 371년에는 힘을 키운 테베가 레우크트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스파르타를 휘청거리게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스파르타의 지배 아래 있었던 많은 도시국가가 해방되었다. 스파르타가 몰락한 이후 패권은 테베에 있었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오랜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지쳐 있었고, 전반적으로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리스 변방의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케도니아는 혼란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힘을 비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 필리포스 2세는 정복 전쟁을 직접 지휘하며 가까운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나갔다. 마침내 기원전 338년에는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아테네-테베 동맹을 꺾으며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 전역을 지배했다. 기세를 잡은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현하지는 못했다. 그는 원정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무렵 자신의 친위대 중 한 명에게 살해되었다. 누가 그를 살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왕위를 경쟁하던 친척들, 적국 페르시아, 혹은 아내 올림피아스 왕비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등 여러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없다.

왕위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청년 알렉산드로스가 이어받았다. 젊은 왕이 즉위하자 기회를 틈타 그리스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열여섯 살 때부터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해왔던 알렉산드로스는 빠른 시간 동안 반란 세력을 모두 제압해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전 334년,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며 레프시아 원정에 나섰다. 당시의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터키와 파키스탄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여러 도시국가들을 해방하며 동쪽으로 진군했다. 많은 전투를 치르며 바빌론을 거쳐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결국 페르시아를 함락했다.

페르시아를 얻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신화의 영웅들과 동일시했고,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노라 다짐했다. 당시 그리스인은 인도가 세계의 동쪽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원정을 계획했다. 그는 거침없이 진군하여 마침내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렀다. 강만 건너면 세계의 끝에 도착한다. 하지만 군대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10년 동안의 쉼 없는 전쟁에 군사들은 지쳐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독려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기원전 325년, 군대를 돌려 페르세폴리스로 돌아갔다.

알렉산드로스가 꿈을 접은 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세계의 서쪽 끝까지 진군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그는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기원전 323년,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유럽과 이집트, 중동과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리스인은 제국의 길을 따라 수많은 정복 도시로 퍼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양과 동양의 인종, 문화, 예술, 기술이 자연스럽게 교류되며 섞였다. 변방이었던 그리스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과 뒤섞이며 헬레니즘이라는 광범위한 문명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위대한 통치자가 될 기회는 갖지 못했다. 제국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에 비해 정치적 안정은 따라가지 못했고,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도 없었다. 제국은 쉽게 분열되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장군들은 제국을 나눠 가졌다. 이집트 지역에 세워진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들어선 셀레우코스 왕국,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나뉘었다. 분열된 왕국들은 로마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300년 동안 존속했다.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유럽의 시간이 고대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시대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로마라는 나라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작은 나라는 이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고대 로마 시대는 왕국이 건국된 기원전 753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기원후 476년까지의 천 년이 넘는 기간이다. 이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로마 왕국, 로마 공화국, 로마 제국이 그것이다. 각각의 시대를 살펴보자.

로마 왕국

전설에 의하면 로마 왕국은 늑대에게 키워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서 시작되었다. 형제는 성장하여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점차 주변 지역을 점령해갔다. 하지만 형제는 다투었고,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소규모의 도시 국가를 건설했다. 'Roma'는 로물루스의 이름 'Romulus'에서 왔다.

초기 로마 왕국은 부족한 주민을 늘리기 위해 도망자와 망명자를 받아주었고, 부족하 여성들은 이웃나라로부터 납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형성된 주민들은 일곱 개의 언덕이 있는 이 지역에서 농업과 목축을 하며 생활했다. 로물루스는 여러 부족 중 100명을 선출해서 원로원을 만들었고 이들의 조언을 참고하며 나라를 통치했다. 로물루스를 포함한 일곱 명의 왕이 250년 동안 차례로 로마를 다스렸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7대 왕이 된 타르퀴니우스는 원로원을 무시한 채 독재를 추진해 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또 그의 아들이 유력 가문의 부인을 겁탈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키자 귀족들과 시민들은 왕에게 저항했다. 결국 왕정은 무너지고 로마에는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었다.

로마 공화국

기원전 509년에 시작된 로마의 공화정은 로마의 발전을 이끌었다. 정치기구인 집정관, 원로원, 민회로 구분되어 있었다. 우선 집정관은 두 명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이들은 행정과 군대를 관할했다. 다음 원로원은 300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귀족 구성체로 권력의 중심이었고, 외교와 재정 그리고 집정관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민회는 보통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입법, 사법, 관리 선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그러하듯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집단과 평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평민간의 갈등은 로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민회 의장인 호민관을 선출하여 원로원의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안정된 정치체제는 로마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이끌었다. 국력은 빠르게 신장되었다.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한 로마는 결국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대결하게 되었다. 포에니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은 기원전 3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100여년에 이르는 치열한 싸움이었다. 오늘날의 튀니지 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카르타고에는 명장 한니발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전략으로 로마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한 명의 명

장만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로마는 카르타고를 점령했다. 일개 도시국가 였던 로마는 이제 지중해 서부 전체를 지배하는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전쟁 이후였다. 식민지가 늘어나고 귀족들의 부는 증가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농토는 황폐해졌고 일반 평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빈부 격차에 따른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갔다. 평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에 선출되었다. 그들은 귀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라쿠스 형제는 원로원과 귀족들에게 살해되었다. 개혁은 실패했다. 로마는 혼란스러웠다. 이 틈을 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1인 독재를 꿈꾸며 로마 정치계에 등장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약한 그는 결국 황제가 되지 못하고 암살되었지만 그의 이름 카이사르는 황제를 뜻하는 영어 시저(Caesar), 독일어(Kaiser), 러시아어(czar)의 기원이 되었다. 이 단어들은 절대적인 힘과 권한을 갖는 황제를 뜻한다.

카이사르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언변뿐만 아니라 카리스마까지 갖춰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는 세 명의 실력자가 동맹하여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삼두정치를 제안하며 집정관이 됨으로써 로마 정치계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에는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의 총독이 되어 로마의 변방을 괴롭혀왔던 켈트족을 복속시켰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업적을 <갈리아 원정기>로 기록했고, 이 책이 로마 시민에게 인기를 끌면서 폭넓게 지지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7년간의 원정 기간 동안 로마 본토에서는 정세 변화가 있었다. 삼두정치 체제의 한 명인 크라수스가 죽자 다른 한 명인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손을 잡았다. 카이사르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왔던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홀로 로마로 돌아갈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았다. 고심 끝에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다. 로마의 경계인 이탈리아 북부의 루비콘 강을 건너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후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카이사르의 전술에 폼페이우스는 대패했고 이집트로 도망쳤다. 하지만 전세가 이미 카이사르에 기울 것을 알았던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살해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로 건너왔다가 운명의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을 다투고 있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도와 프톨레마이오스를 몰아냈고, 그녀를 여왕의 자리에 앉혔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아들을 데리고 모든 정적이 사라진 로마로 돌아갔다.

카이사르는 스스로 종신 독재관이 되었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는 개혁들을 빠르게 진행했다. 그가 황제가 되려 한다는 우려가 원로원과 귀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암살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카이사르를 열 네명의 귀족들이 둘러싸고 단도로 살해한 것이다. 그중에는 카이사르와 젊은 시절부터 전장을 함께 누비던 데시무스 브루투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총애하던 브루투스의 알아본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외쳤다고 한다. 카이사르를 지지하던 민중은 분노했다. 결국 카이사르가 정치적 후계자로 예정했던 옥타비아누스가 내전 끝에 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권력을 획득했다. 그리고 스스로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내었다.

로마 제국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의 즉위와 함께 고대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미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다.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불렀다. 로마의 영향력은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과 영국을 아울렀고, 동쪽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권, 이집트, 유대 지역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각양각색의 인종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인이 스스로를 ‘유럽인’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묶어 사유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단일한 역사에서 기원한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제 3대 칼리굴라와 제5대 네로 같은 황제가 나타나 폭압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 다섯 명의 어진 황제, 즉 오현제의 출현으로 로마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오현제는 차례로 네르바,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다. 기원후 95년부터 180년까지 이어진 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파크 로마나라고 부른다. 당시 로마 제국의 면적은 오늘날 미국의 3분의 2에 이르렀고, 인구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로마가 이 거대한 제국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으로 그들이 도로와 항구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교통로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 효과를 만들어냈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대 지역을 단일한 문화권, 경제권으로 묶어낼 수 있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로마의 다문화, 다신교 정책 때문이었다. 로마는 정복지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고 그들의 자치도 허용했다. 여기에 더해 로마의 법과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로마의 지배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들만의 역사, 종교, 문화, 인종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유대 지역도 그중 하나였다.

로마 제국 변방의 유대 지역

유대인의 파란만장한 역사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는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유대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여러 제국에 점령되었던 곳으로, 오랜 시간 유대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기원전 1030년, 사울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치세를 이어갔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도시를 정비하고 외교를 통해 국내외를 안정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둘로 나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거느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남유다 왕국은 유대인의 뿌리가 되었다.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후에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은 나머지 열 개 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였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했다.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인은 아시리아인과 혼합되었고 후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렸다. 유대인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천대했다.

유다 왕국도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렸다. 혼란한 시대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그는 아시리아의 침공과 이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신바빌로니아의 침입을 예언했다. 사람들의 부도덕을 꾸짖었고, 지금 당장 회개할 것과 오직 신에게만 의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처녀가 잉태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며, 비로소 신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했다.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침공을 감행하자 유다 왕국은 멸망했다.

왕국이 사라지고 유대인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기원전 597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4만여 명이 노예가 되거나 지구라트 건설에 동원되었다. 이를 바빌론 유수라고 한다. 이 시기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에게 깊게 자리 잡혀갔다.

바빌론 유수는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될 때까지 60년 동안 지속됐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는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유대인이 이곳에 돌아와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유대인의 삶은 안정될 수 없었다. 전쟁과 혼란은 계속됐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했고, 유대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그의 장군들에 의해 나뉘었던 세 국가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때가 기원전 4세기였다. 이후 기원전 63년에는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 유대인은 기원후 66년에 로마에 저항해보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유다 왕국이 무너진 이후 유대인은 역사상 한 번도 통합된 국가를 갖지 못했다. 나라가 없는 유대인은 전세계로 흩어져 떠돌았다. 그들이 다시 국가를 형성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였다. 1948년, 유대인은 이곳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성경에는 이들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럿 나온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등이 그것이다. 우선 히브리는<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단어다. 아브라함은 자라려진 것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이 되는 인물로, 그가 강을 건너 이주해 왔다는 뜻에서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의 하바루에서 이 단어가 기인한 것으로 본다. 또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의 이름에서 기인했다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핵심은 히브리라는 단어에는 유대인의 민족적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다르 이름이다. <구약>에 따르면 야곱은 압박강의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결국 ‘하느님과 겨루어 이기다’ 혹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 단어 역시 조상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유대인의 소속감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유대 혹은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에서 기인했다. 열두 아들은 이후에 열두 지파의 기원이 되는데,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다. 이 혈통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유다 왕국의 뿌리가 되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뿌리를 유다 왕국의 왕권에서 찾는다.

<구약>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인데, 사실 수천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인물들을 시대별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기억하기 편리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천 년 전의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이 1천 년 전의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 왕은 8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시 아브라함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알았더라면 그가 500년 전의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의 생애와 사상

출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의 혈통과 이어지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사실 가난해서라기 보다는 목을 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누가 2.7>’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 있었던 것은 호적 조사 때문이었다. 당시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 제 1대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 과세 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국 전체에 대대적인 호적 조사를 지시했다. 유대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모든 이가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본적은 17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있었기에 호적 신고를 하러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왔던 것이다. 요셉 외에도 호적 신고 때문에 이동해야 했던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숙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예수의 탄생은 서력의 정의에 따라 당연히 1년이어야 하지만,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마도 기원전 7년에서 기원전 4년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대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란 사실을 고지 받았다. 이를 ‘수태고지(受胎告知)’라 한다. 그 후 마리아는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렸고, 요셉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다. 하지만 꿈에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결혼을 받아들였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요셉이 목수였기에 예수는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배웠다. 청년이 되어서는 보통의 유대인처럼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이때 이사야의 예언서를 인용하여 자신이 고난 받는 민중을 이끌 것이라고 설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그의 변변치 못한 신분을 비웃었다.

때가 이르자 예수는 출가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는 요한을 찾아갔다. 요한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며 다녔기에 그는 유대인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예수를 본 요한은 예수에게 물로 세례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했다.

예수는 홀로 광야로 나갔다. 척박하고 쓸쓸한 그곳에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여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침잠했다. 고행하는 예수에게 악마가 찾아와 그를 세 번 시험했다. 첫 번째로 악마는 돌을 들어 보이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말했다.

예수는 <구약>성서를 이용해 답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신명기 8:3)” 두 번째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당신을 시중할 것이니 이곳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말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신명기 6:16)” 세 번째로 악마는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했다. 예수는 이 시험도 물리쳤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신명기 6:13)” 악마는 물러났다.

예수는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제자로 삼고, 갈릴래아 지방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나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이 모이자 예수는 갈릴래아 호수 북쪽의 낮은 언덕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설파했다. 이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 초기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행위 지침이 잘 드러나 있다. 성서 중의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르침의 첫 주제는 여덟 가지의 참된 행복이다. 이를 팔복이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독교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등장한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독교의 교리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과 분리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면 사후에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적이고 혁명적인 측면이 있다.

당시 유대인이 예수라는 젊고 낮은 인물을 따르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고, 노예의 신분과 다를 것이 없었으며, 항상 착취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율법가나 제사장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일반 민중에게는 엄격한 종교적 규율만을 강요했다. 민중은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기를, 삶을 개선하고 민족을 해방해줄 메시아가 도래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기에 예수의 등장은 유대인에게 단비와도 같았다. 예수는 당시의 부패한 기득권을 비판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으며,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고된 현실에 곧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설파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들추고 민중에게 인기를 얻어가는 예수가 유대 율법가와 제사장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민중은 환호했다. 사람들은 겼옷을 벗어 길에 펼쳐놓았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뿌려놓았다. 많은 사람이 그를 정치적 혁명가로 생각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감사 기도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유대 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한 가리옷 유다가 자리에서 뛰쳐나가 예수를 고발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는 체포되었다.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의회에서 신성 모독,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의 죄목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유대 지역 집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로마에 저항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처형의 결정을 유대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 빌라도는 이때를 이용해 예수와 도둑 바라바 중에서 누굴 석방할지 유대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대인은 바라바를 원했다. 빌라도는 물에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있다." 그러자 유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매질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역사가들은 유대인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바라바가 유대 독립운동 집단의 열심당의 일원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식민지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법이었다. 예수는 골고다언덕까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올랐다. 그리고 두 명의 도둑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오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주검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동굴에 보관되었다. 하지만 이틀 후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고,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의 두 가지 의미

역사로서의 예수, 초월로서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절대적 선으로서의 신이 죄로 가득한 인류와 관계 맺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난 자의 희생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위해 인류에게 왔고, 죽음으로써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기원은 바울에게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인 그리스도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재'와 '그리스도의 큐리오스로서의 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재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존재로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로고스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큐리오스로서의 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보고 그가 곧 큐리오스(Kurios, 주님)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리스도론은 삼위일체론과 함께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지위에 대한 해석이 예수 스스로나 혹은 그의 생전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바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바울도 예수의 제자인 사도로 인정받았으나, 그가 실존하는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후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사상을 전파했다.

바울의 열정 위에서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의 그리스도론과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예수는 생전에 자신이 신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고 밝힌 적이 없었고, 그의 가르침도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이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바울은 예수의 생전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집중했다. 말하자면 구체적 현실의 예수가 바울로 인해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예수로 변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대립 혹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로서의 예수와 초월로서의 예수는 예수라는 존재의 두 가지 측면이자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도그마나, 하나의 관점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이해 방식일 것이다. 이제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바울

바울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한 인물로, 오늘날의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핵심이다. 개신교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가톨릭에서는 바오로,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바울로라고 부른다. 혹은 팡루로, 파울로스, 바우로 등으로도 부르는데, 각자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 사후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립된 종교를 믿는다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고, 예수라는 인물도 그저 유대교 전통 안에서 탄생한 주요 인물들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구약>성서를 기반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 그는 로마로부터 그리스, 소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 비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다. 그의 사상과 열정은 <신약> 성서의 열세 편에 달하는 <서신서>에 잘 드러나 있다. 기독교를 종교와 신앙이 아니라 역사와 사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바울의 출생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대략 기원후 10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터키의 도시 타르수스의 엄격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사울이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해외 거주 유대인이 유대 이름과 로마 이름을 모두 사용했기에, 로마식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아마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주의 분파인 바리새파의 일원으로 교육받았다. 청년이 되어서는 유대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올곧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유대 율법에 소홀한 초기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 바울은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젊은 지도층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원후 34년 무렵,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그는 놀랍게도 밝은 대낮의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음성이 들렸다.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행 9:5~6)

눈이 먼 상태로 마마스쿠스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에 살고 있던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났다.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은 후에야 그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심경의 변화를 겪은 바울은 깊게 회심했고, 열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를 사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사도란 '특정 임무를 위해 앞서 보낸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생전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빛으로서의 예수를 만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리아 교회의 지도자 바르나바가 그의 사도권을 보증한 후에야 자격을 인정받았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41년부터 58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기나긴 선교 여행을 떠났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을 떠돌며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 고된 과정은 그전까지 유대교의 작은 종파로만 여겨지던 기독교가 국제적인 거대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2년간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석방되자마자 다시 로마와 스페인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펼쳤다. 그가 돌아다닌 거리는 대략 3만 2천km 에 달했다. 지구 둘레의 길이가 4만km 이고, 서울에서 파리까지의 직선 거리가 9천km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열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열정적인 바울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때문이었다.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을 잿더미로 만든, 로마 역사상 가장 처참한 화재였다.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인근 도시에서 식량을 수송해왔다. 그럼에도 민심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었다. 네로가 자기 이름을 붙인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암살한 일,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낸 일 등 기존의 실책들로 이미 민심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은 황제의 권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와 지배층은 민심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다. 때마침 성장하고 있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눈에 들어 왔다. 당시 로마인에게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자를 믿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였다. 네로는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의 방화로 돌려 300여 명을 화형에 처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박해에 휩쓸려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하게 되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바울은 이미 늙어 허리가 굽고 그동안의 감옥살이로 병색이 짙어 있었다. 하지만 씩씩하게 사형장으로 걸어갔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생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기독교의 탄생

세계 종교가 된 이유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그는 유대교의 작은 종파로 여겨지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바울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는 기독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기독교를 열정적으로 전도함으로써,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의 종교로 규모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의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는 하나의 종파라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유대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했다. 반면 바울은 유대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의 선교 지역이 비유대 지역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보기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 전통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믿음만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 여겼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바울과 베드로를 대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했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기독교인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바울은 타 지역의 기독교인을 이끄는 지도자임을 서로 인정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십자가형과 부활이라는 신비주의적 신앙을 신에 의한 구원의 역사라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격상시켰다. 여기서의 내용적인 측면은 형식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즉, 유대 율법과 전통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라는 유대인의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교리와 심도 있는 철학 체계가 필요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의 생전 가르침보다는 죽음과 부활의 초월적 의미에 집중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바울의 한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살아 있는 예수의 직접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했으니 말이다. 바울의 말대로 그는 신적인 현현으로서의 예수를 만났고, 사도들로부터 부활의 기적을 전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생활을 함께 했던 사도들의 예수와, 초월적 존재로서의 바울의 예수는 당사자들에게 서로 다른 이미지일 수밖에 없었다.

초월적 예수는 바울의 입을 통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 사학자 요셉 클라우스너는 이렇게 평가한다. “예수 없이는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

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세계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사이에 퍼져간 기독교의 개창자였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바울이 뿌린 씨앗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로마 제국에서 싹을 틔우게 되었는지 알아볼 차례다.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보자.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 기독교는 꾸준히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민중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로마의 박해는 300년간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로마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대략 50년간 18명의 황제가 쿠데타와 암살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평균 재임 기간은 2년 남짓이었다. 이 시기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한다. 이 혼란을 끝낸 인물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다. 농민 출신으로 군인을 거쳐 황제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일단 정치적 혼란을 멈추긴 했지만 로마는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거대한 영토가 필요했고, 이러한 거대 영토는 필연적으로 산발적인 이민족의 침입에 노출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군인 출신이었기에 게르만족이나 고트족 등의 이민족이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변방 문제를 중앙에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것은 한 명의 황제를 더 임명하고 두 황제가 각각 한 명씩의 부황제를 임명하여 제국을 사분할 통치하는 체제였다. 네 명의 황제가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고 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 이 제도는 단기간에 단일 왕권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오래지 않아 통치권의 불안을 가져왔다.

네 명의 황제 중 한 명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306년에 죽자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서로마의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다른 세 황제는 이제 막 서른세 살이된 젊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일으켰다. 군사, 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가졌던 그는 다른 황제들을 차례로 제압해갔다. 결국 324년, 제국은 다시 통일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단독 황제에 올랐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다. 그것은 그가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 중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와 권리를 인정했고, 몰수 했던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었다. 325년에는 예수 사후 300년 만에 첫 번째 공의회를 열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게 했다. 이때 주된 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의 교리에 대한 평가였다. 결과적으로 아리우스파의 견해는 부정되었고, 나누어졌던 교회의 입장이 통합되었다. 이를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한다.

통일된 로마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395년, 로마 제국은 다시 분열되었다. 서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했고, 비잔틴 제국이라 불리게 된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 터키,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476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 후 이 지역은 게르만족의 여러 독립 국가로 갈라지며 오늘날 서유럽의 기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고대 로마 제국의 시대로 본다. 물론 로마 제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중세까지 이어져 1453년까지 존속했다. 이 외에도 서유럽 지역에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 등 로마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국가들이 나타나며 로마의 정신은 계승되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로마가 분열되기 직전의 통일된 시기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로마 제국 분열 이후에도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

세계관의 공유

서양 세계관의 두 축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만으로는 너무도 이질적인 두 사상 체계의 공존을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는 역사뿐 아니라 사상적 배경까지 공유함으로써 2천 년간 공존할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교리 안에 녹여냄으로써 사상 체계를 세련되게 정립하는 동시에 이원론적 세계관에 익숙한 유럽인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접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다. 특히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부 철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교부 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한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들이었다. 그중에서도 4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에 플라톤 철학을 직접적으로 녹여냄으로써 신앙으로서의 종교와 이성으로서의 철학이 융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의 끝에 태어나 유럽의 중세를 탄생시킨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그는 35년 오늘날 알제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 수크아라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가난했고,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다. 그의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의 교육에 헌신적이었다. 부모의 노력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지적인 열정을 발산할 수 있었다. 카르타고로 유학을 갖지만 로마 제국 말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려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 열아홉 살이되어서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를 읽고 불멸의 지혜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키케로의 사상은 그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다. 방황하던 그는 당시에 확산되고 있던 마니교에 심취되기도 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마니교는 선악 이원론의 단순한 교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는 종교였다. 이후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마니교와 멀어졌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결국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서전 <참회록>에는 그의 지적 여정이 잘 그려져 있다. 이후 그는 사제가 되었고, 395년에는 지금의 알제리인 북아프리카 히포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 흥흥했다. 번영은 사라졌다. 그것은 게르만족이 훈족의 침입을 피해 빠르게 남하하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로마 제국의 북쪽 지역부터 게르만족의 정착지가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 많은 로마인이 위기와 혼란의 원인을 기독교에서 찾았다. 그들은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을 저술하여 기독교를 변호했다.

그는 이 방대한 역사철학서에서 세계를 둘로 나눴다. 우선 '이교도의 신들'과 '기독교의 신'을 나눴다. 그리고 각각의 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로마의 신들에 대한 예배는 인간을 현세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부정적 성향으로 이끈다. 이것이 로마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이고, 현재 로마를 위기로 이끈 실제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의 신은 이데아에 따라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은총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신이다.

다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구분을 국가의 구분으로 연결했다. 그것은 '인간의 나라'와 '신의 나라'다. 이교도의 신들을 믿는 인간의 나라는 자신에 대한 자만과 자애를 기반으로 하는 이기적인 국가이고, 기독교의 하느님을 믿는 신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신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숭고한 국가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었다. 그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두 세계의 운명은 결국 유일자이자 절대자인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멸망과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사실이나 아니냐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대신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과 인간, 기독교와 이교도에 대한 그의 구분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원론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교육받았고 특히 플라톤 사상에 익숙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독교를 플라톤적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도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을 자양분으로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론적 논의를 섬세하게 다듬어갔다. 이러한 점진적 과정 속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통합은 유럽 사회에서 실현되어갔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일견 대립되어 보이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세 단계를 통해 가능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바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신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개념적 일반화를 통해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를 넘어 다양한 문화권, 특히 로마 제국에 수용될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독교 교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다듬어지고 접목된 것이다.

이후 서양의 철학과 종교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공유하며 고대를 넘어 중세와 근대로 이어졌다. 1500년의 시간 동안 서양인은 드넓은 이원론의 세계관 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눈을 감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와 세계를 나누고 세계와 자

아를 나누는 이원론자가 되었고, 이데아와 이성, 천국과 영혼, 본질과 금욕을 추구하는 로고스 중심주의자가 되었으며, 눈 앞의 세계를 실체라고 믿는 실재론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원론을 공유하던 철학과 종교는 근대에 이르러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갔다. 철학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일 관념론을 탄생시키며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반면 기독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유지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한 기독교인의 노력의 결과였다. 전지전능하고 완전무결한 신의 개념을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둘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2천년 가까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켰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기독교 신비주의는 자아의 내면에서 전체이자 궁극으로서의 신을 만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이어지고 있다. 이 독특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일원론의 가능성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원론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 사상이라면, 이것이 유독 기독교에서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이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사상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일원론적 관점은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그 중시에는 독일 기독교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있다. 그는 13세기 중세 유럽에서 활동한 사상가로, 도미니크회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은 뛰어난 스콜라 철학자로 평가되며, 독일 신비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에크하르트는 1260년 무렵 독일 튀링겐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10대 시절에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가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들을 공부했다. 이후 파리 대학에서 수학했고 그곳에서 신학박사가 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부했고 신학을 가르쳤으며 에어푸르트 수도원의 언장 직책을 수행했다. 1302년에는 '거룩한 신학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마이스터'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원래 이름인 요한네스 에크하르트 대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 불리게 되었다.

교회는 그에게 많은 역할을 맡겼다. 1304년,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독일 작센 지방의 도미니크회 관구장이 되어 47개에 이르는 수도원을 관리했고, 주교 총대리직을 수행하거나 교회의 임명이 있을 때 신학자들을 가르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50세를 넘긴 1311년부터는 저명한 설교자로 대중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파리, 슈트라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쾰른 등지에서 라틴어 대신 모국어인 독일어로 대중을 가르쳤고, 특히 수도사들을 교육하며 신비 체험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는 마음에 신이 내재하고 있음을 가르쳤다. 또한 문자로서의 교리보다 신실한 체험을 강조했다. 깊은 침묵속에서 내면의 심연으로 내려 갈 때, 우리는 신의 실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 안에서 광활한 세계를 보았고, 인간의 영혼과 신의 궁극적 합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의 가르침에 많은 이가 호응했던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중세 유럽은 종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점차 근대 이성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었다. 학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와 이성중심주의를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올렸다. 민중은 권위적이고 부패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신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닿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와 기독교의 의미가 쇠락하는 상황에서 에크하르트는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그가 설교하는 자기 내면에서의 신과의 합일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많은 이에게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당시는 이단 재판과 화형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다. 1326년, 에크하르트의 나이가 67세가 되었을 때 도미니크회와 대립하던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쾰른 대주교는 에크하르트가 이단의 가르침을 전파한다며 그를 고발했다. 그리고 쾰른에서의 종교 재판에서 에크하르트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죄목은 그가 사람들에게 범신론을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범신론이란 세계 밖의 초월적 인격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와 신을 동일시 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는 당시 무신론적 철학자들이 말하던 세계관이였다. 에크하르트는 교황에게 항소했다. 하지만 노쇠한 그는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요히 영면에 들었다.

그가 죽고 2년이 지났을 때, 교황 요한 22세는 그의 글과 강의에서 발췌한 28개 명제를 평가해서 이루는 이단이고 일부는 이험하다고 판결했다. 사실 교회가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은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가 교회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기도 했다. 중간에 교회의 권위를 매개하지 않고 신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사상을 교회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저작물은 배포가 금지 되었고, 공개적 논의도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그의 저작의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오늘날까지 남은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요하네스 타울러, 하인리히 소제, 헨리크 수소 등의 뛰어난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기 안에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신앙인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에크하르트의 사상

에크하르트는 신과 자아의 일체성을 인식하고자 했다. 이것이 그의 신비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그에게 신이란 기독교의 삼위격 초월한 근원적 신성(神性)으로서의 존재를 말한다. 근원적 신성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규정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무한(無限)인 동시에 무(無)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언어로 묘사하려고 시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 자체와 멀어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신은 이것이라고도 저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설명이 <베다>나 도교 혹은 불교에서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베다>는 궁극적 존재로서의 브라흐만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까닭에 'neti neti', 즉 '아니다, 아니다'로 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도덕경> 첫 장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는 '도를 도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를 말하며 궁극적인 존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나 칸트의 물자체에 대해 말할 수 없음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궁극적 존재에 닿고자 하는 모

든 이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사유의 유일한 도구인 언어의 한계에 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에크하르트는 말한다. '신의 본질과 합일 되기 위해서는 신의 개념도 떨쳐내야 한다.'

다음으로 에크하르트는 자아에 대해 설명하고, 동시에 자아 안에서의 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영혼 혹은 마음의 깊은 곳에 '영혼의 불꽃이 있음을 말한다. 내면으로의 깊은 침잠과 탐색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빛은 신 자체의 힘이고, 신이 인간 속에서 작용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세계 전체로서의 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함으로써 합일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면의 영혼의 불꽃과 전체로서의 신의 합일, 에크하르트는 이를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이 탄생한다."라고 표현한다.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단순한 이가 신은 저기에 있고 자신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을 보아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인식을 통해 신을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랑을 통해 나는 신 안으로 들어선다.”

만약 우리가 [베다] 편에서 시작해서 [기독교] 편에 이르는 방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에크하르트의 글을 읽었다면 그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단순히 몽상가로, 심하게는 정신 이상자로 볼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 사상을 따라오며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에크하르트의 사상과 체험은 독특한 무엇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서 자기 내면의 심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보편적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에크하르트는 범아일여, 도와 덕의 일치, 일체유심조, 관념론 등과 동일한 맥락으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에서의 일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신의 임재를 기다리는 '관상기도(觀相祈禱)에서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아에서 벗어나는 '그냥 내맡겨 두고 있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완전한 무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때 그 안에서 완전한 무로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초월적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상태가 된다고 에크하르트는 말한다.

진정한 자유, 이 말은 세속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 일생 전체가 자본주의적 노동과 소비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심연으로 침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 우리는 비로소 에크하르트의 말을 이해하게 될지 모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내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고, 진리가 이를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